



2021 년 3 월

친애하는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겐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 이 단순한 명령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쉐어라이프가 자금 지원을 하는 40개가 넘는 기관들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제일 먼저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도움을 떠나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필 더프린 지역 가톨릭 가족 서비스 기관장인 샤론 메인 디바인은,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관이 하는 일을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가족 폭력의 피해자와 같은, 기관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건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이 순간에 "깨어 있도록" 전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봐주고 알아준다는 것을 느낄때, 그들의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깨어 있겠습니까?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점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기관들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도움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 코로나19을 두려워하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일주일 분의 식료품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 수화를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대화가 힘든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또래들과 연결시켜 소외감을 덜어줍니다.

- 팬데믹이후로 더욱 악화된 약물 중독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젊은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일들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지원이 수천 명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팬데믹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구의 본당 캠페인 목표인 1,38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사회안의 취약계층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자의 역할을 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기 남아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쉐어라이프 캠페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저와 함께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 Thomas Card. Collins*

토마스 콜린스 토론토 대주교 올림

추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들 중에 있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연민어린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